광주시,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산업부 '골대체 실증사업' 선정
2028년까지 국비 등 185억 투입
3D프린팅기술 적용 전주기 지원
시장 확보·경제 활성화 등 기대

광주시가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실증도시로 도약한다.

광주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골결손 부위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입,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의 핵심기술인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과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골결손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면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환자의 수술 안전성 확보와 회복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맞춤형으로 제작된 골반골이나 인공턱 등은 반영구적이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인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임상의 주도의 실증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인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관련기업 집적화와 세계적 선도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이 주관을 맡아 기업 지원공간과 장비 운영, 사업관리 등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남부대학교, 충남의 건양대학교가 공동 참여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략수립,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광주시가 융합의료기기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디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민관협치 '건설현장 품질관리' 챙긴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위원과 함께 8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건설현장 품질관리 상담을 진행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은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공정률이 50% 이하인 서구 마륵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5곳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무원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발주자,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에게 공사 추진중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등 맞춤형 품질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조언한다. 또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에게는 품질·시공·공정·안전에 대한 지도 방법 등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현장관리교육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 주도형으로 출범했다. 계획(P), 실행(D), 평가(C), 제도개선(A) 분과별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문제점을 검색(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정책들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4월 인·허가기관인 5개 자치구 소속 건축직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화정동 붕괴사고 후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한 '2022년 감사원 보고서'와 광주시 인허가기관 건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분석해 5~6월 회의를 잇따라 열어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품질관리 업무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병하 기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천대학 선정 용역 돌입

용역기관 컨소시엄, 착수 보고회
3단계 공모절차 10월까지 마무리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8일 전남도청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용역기관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통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올해 10월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 위원회 위원 또한 대학과 지역, 이해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 또한 일체 활용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과 도민,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대학이 용역 주체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전남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설립 방식과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도 경청한다.

미선정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다.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하수처리시설 2개 분야 '우수' 선정

광주시는 환경관리공단의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효천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 2개 분야에서 우수시설에 선정돼 유공자 표창(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1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 우수시설 선정에 이어 효천하수처리장도 기술진단 우수시설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기술진단을 완료한 전국 하수도시설 77개, 악취방지시설 164개 공공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현황, 연구개발, 서비스분야 등 3개 분야 15개 항목 등에 대해 1차 서류, 2차 현장 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했다.

광주 효천하수처리장은 하수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및 기술진단, 운영관리, 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기술진단 평가는 하수도법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적정성을 평가,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과 우수시설을 발굴·포상하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제1하수처리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 효율화와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 하수 처리효율 개선으로 영산강 방류수역 수질개선 강화에 대처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지역, 1950~70년대 시대극 촬영지 '급부상'

하이재킹·삼식이 삼촌 등 촬영
장흥교도소·벌교터미널 등 인기

전남이 1950~70년대 시대극 촬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전남영상위원회에 따르면 '하이재킹', '삼식이 삼촌' 등 최근 방영된 시대극 드라마와 영화가 전남에서 잇따라 촬영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개봉한 하정우, 여진구 주연의 영화 '하이재킹'은 1971년 여객기 납치사건에 대한 영화로, 전남 장흥 옛 장흥교도소, 벌교터미널 등이 등장한다.

옛 장흥교도소는 드라마 '모범택시2', '설강화', '이재, 곧 죽습니다' 등 2020년부터 50편 이상의 영상을 촬영한 곳으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진에게 단연 1순위 촬영지로 손꼽힌다.

하이재킹에서 옛 장흥교도소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주인공의 아픈 기억 속 공간으로, 벌교터미널은 공항으로 탈바꿈했다.

OTT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된 송강호, 변요한 주연의 '삼식이 삼촌'도 전남 로케이션 촬영 지원작이다.

전쟁 중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의 이야기로, 1950~60년대의 모습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식이 삼촌'은 순천의 옛 제일대 승주캠퍼스, 순천 드라마촬영장, 신안 태평염전, 해남 옥매광산 등 전남 곳곳을 돌며 촬영했다.

옛 제일대 승주캠퍼스,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1000만 영화 '서울의 봄'과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카지노' 등을 촬영한 곳으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각각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 예전부터 드라마, 영화 제작사로부터 각광받아 왔다.

일제 강제동원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해남 옥매광산은 '삼식이 삼촌'에서 안기부로 등장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